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암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50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음 9월 2일) 제214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지난 8일 도청 천년누리광장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전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성화 출발식에 송하진 도지사가 첫 주자로 나선 김지연(아시안게임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선수에게 성화를 인계하고 있다.

전북 곳곳 전국체전의 성화 '활활'

도, 성화봉송 추진

전북만의 맛·혼 보여주도록
이색적인 특별봉송 준비
전주·완주·무주 등에 안치
장애인체전과 동시에 봉송

전북도는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10.25~29)을 밝혀줄 성화봉송 첫날인 지난 8일 도청을 출발하여 전주, 완주, 진안을 거쳐 무주와 정수에 안치했다고 9일 밝혔다.

〈관련기사9면〉
성화봉송은 단순히 대회 시작을 알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환경을 한 눈에 조감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전북만의 맛과 혼, 힘을 대내외에 열심히 보여줄 수 있도록 이색적인 특별봉송을 준비했다.
이번 성화봉송은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최초 동시봉송이면서 경량탄소성화봉 세계최초 제작사용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계층간의 벽을 허물고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성화봉송의 첫 구간의 성화는 자가트라·팔렘방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8명과 패럴림픽 참가선수 2명이 첫 주자로 뛰게 된다. 이들은 도청 천년누리광장 출발식 행사에서 도지사와 도의장에게서 성화를 인계받아 도청유치원 후문까지 봉송하는 대장진이 시작됐다.
첫 주자로는 익산시청 소속 김지연 펜싱선수과 전북장애인크로스 컨트리 스키팀 소속 권상현 선수다.
특히, 최고령자인 최석호(전주시, 시청광장→신협, 호위주자)와 최연소자인 김예나(완주군, 봉동초 정문→봉동터미널, 호위주자) 전북체육중학교 2학년 학생이 성화봉송에 참여했다.
두 번째 구간에는 전북체육회 최형

원 사무처장과 전북장애인체육회 노경일 사무처장이 전북경찰청까지 주자로 참여, 전주시청 광장에 도착하여 난타와 비보이 공연 및 자전거 공연으로 성화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체전 성공기원 노래 합창 및 전주를 알리는 글 낭독을 시민들과 함께 외치고 성화는 주자에게 인계되어 출발했다.
도 운동목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제99회 전국체전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성화가 정도 천년의 빛으로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혀 양대 체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마지막 날까지 사고없는 안전한 봉송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고질적 지역문제, 주민들이 직접 해결

전주시, 26일까지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 추진

전주시가 고질적인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하는 리빙랩(Living Lab·생활실험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2018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리빙랩은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최근 지역 문제해결의 혁신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공모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제 중 '주민주도의 사회혁신 확

산'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공모에 전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동네 골목의 쓰레기 문제부터 주차난, 학교 폭력 나아가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피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의 총 지원액은 4억2000만원이며, 기획주제와 자유주제, 프로토타입(시제품) 지원, 아이디어리빙랩 등 4개 분야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며 프로토타입 지원의 경우에는 내년 4월까지다.
심사 후 최종 선정된 팀은 11월 중에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뒤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송효철 기자

혁신학교, 자율학교로 지정

전북도교육청, 교육감 직권지정 추진... 교육과정 다양성 강화

내년부터 전북지역 모든 혁신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혁신학교 전체를 자율학교로 직권지정 하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관련부서들에 주문했다.
자율학교는 관련법령에 따라 교장 임용, 교육과정 운용, 교과서 선정 및 사용, 학생 선발 등 자율성을 갖는 학교를 말한다.
현재 도내에서는 초·중·고교 57곳이 자율학교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혁신학교 18곳(초 10개교·중 5개교·고 3개교)이 포함돼 있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교육과정 운

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이에 그동안 혁신학교로 지정·운영되는 학교들의 자율학교 동시 지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혁신학교들이 자율학교로 동시에 지정되면 중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김승환 교육감은 유치원 영어교육 허용과 관련해서는 '놀이중심'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유치원 교육 전체를 놀이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레야 학습발달과정에 맞고,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과도 아무런 부담없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참은성 기자

평일에도 '전주문화재 야행' 즐겨요

시, 내년부터 상설 운영

전주한옥마을의 역사문화 콘텐츠로 호평을 받았던 문화재 야행이 평일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상설화된다. 이 프로그램이 상설화됨에 따라 전주에서 하루 더 머물게 만드는 '하루 더 프로젝트'에 힘이 실리게 됐다.
9월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열린 '전주 문화재 야행'이 한옥마을의 대표적인 야간 문화관광콘텐츠로 평가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평일에도 상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주 문화재 야행은 전주시의 각종 문화시설과 상가, 숙박시설 등의 유기적인 협력과 문화예술인 150여명이 참여해 한옥마을을 경유하는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하는 콘텐츠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 9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경기전 야간 기행 프로그램인 '왕과의 산책'은 왕의 음성으로 문화해설을 들으며 달빛을 보며 차를 마실 수 있어

즐거움을 높였다.
또한, '이야기술사'는 역사적 고증을 통해 풀어나온 조선왕조실록의 숨겨진 이야기와 조선지도, 태조어진,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어 배우들이 실감나게 전달한다.
시는 평일 야간에 왕과의 산책과 이야기술사, 수문장 교대식과 수문장 배치, 수복청 공연, 풍남문 미디어아트, 향교 별빛 콘서트 등 문화재 역사 콘텐츠를 고르게 배치해 전주가 간직한 문화재의 매력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재 야행이 상설화되면 주야간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관주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 문화재 야행을 통해 한옥마을 역사 문화 콘텐츠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전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의정활동으로

부안군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 부안군의회